

##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노출태도에 관한 연구

김 현 정\*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Body Exposure Attitudes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Hyun-Jeoung Kim\* · Myoung-Hee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0. 1. 5, 심사(수정)일: 2010. 2. 22, 게재확정일: 2010. 2. 26)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body exposure attitude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a survey research method by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632 college students (male: 302, female: 330) living in Seoul a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Analysis methods used were frequenc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types of sex role identity: androgynous, masculine,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type. The female androgynous group had skin care the most, while the male androgynous type had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the most among the 4 types. Both male and female androgynous groups had hairstyle care the most. Both the male and female masculine groups wore chest exposing clothes the most, while the female masculine type wore shoulder exposing and leg exposing clothes the most. The female androgynous group showed the highest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Key words: sex role identity(성역할정체감), appearance management(외모관리),  
body exposure (신체노출).

## I.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 의학의 발달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미에 대한 개념도 다양해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는 여성에게 일반적이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도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취업준비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네티즌의 71%가 같은 조건에서 면접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sup>1)</sup> 실력과 더불어 외모는 자기관리를 잘 하느냐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외모관리 열풍은 타고난 외모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였으며, 더욱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의지는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들로 나타난다.

성역할이란 특별히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한 행동 기대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태도와 행동 및 그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sup>2)</sup>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다움과 여성은 여성다움이 기대되었다면 현대의 사회변화 속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호해졌고,<sup>3)</sup> 남성적, 여성적 행동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달라졌다. Bem<sup>4)</sup>은 성역할정체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대학생 피험자의 35%가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이 둘 다 강한 사람을 양성성이라 칭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적응력이 우수하며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현대는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성의 개방화 등으로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복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고, 신체노출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게 되었다. 신체노출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몸매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지닐 수 있다.<sup>5)</sup> 이수지<sup>6)</sup>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유행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을 의식하여 의복으로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려고 하였다.<sup>7)</sup>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모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남녀 모두 2/3 이상의 청소년들이 외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고치고 싶은 신체 부위로 여학생은 눈과 코, 남학생은 키를 가장 많이 크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sup>8)</sup> 특히 남자들은 평상시 운동이나 식사습관, 수면 등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sup>9)</sup>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관련태도를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외모는 타인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나 여성성 등의 성역할 정체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소비시장에서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외모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도움을 주며, 의복과 외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의 정의를 습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sup>10)</sup> 각 개인이 어떠한 성유형화가 되는가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양성적 시각에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

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은 변화하며 따라서 현대는 유능한 성인일수록 그 양자를 조합해서 지니고 있다고 주장되어왔다.<sup>11)12)</sup> 즉 성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양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개념에 전통적인 성역할개념을 결합시키지 않으며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sup>13)</sup> 성역할 개념은 미에 대한 정의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외모나 체형에 따라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역할정체감이 반영되는 의복행동과 태도 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개인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성향에 따라 의복인지도와 선호하는 의복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4)</sup> 이윤정<sup>15)</sup>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남성성이 높고 의복에서 유행성과 개성을 추구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였다. 또 남자 대학생들은 과거의 성역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양성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성의 남자 대학생이 체격관리와 의복, 장신구 구입 등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모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명희<sup>17)</sup>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 의복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다름을 밝혔는데, 남성성 집단은 여성의복에 대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 2.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타고난 외모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sup>19)</sup>

김아날리아 외<sup>20)</sup>의 연구에서 의복을 통한 외모꾸미기에는 의복,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여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관심 및 헤어관리 정도가 더 높았다. 임경복<sup>21)</sup>의 연구에서도 의복관심은 자아개념과 긍정적인 관계

를 보였다. 이영숙 외<sup>22)</sup>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시 자신의 용모(26.5%)와 옷차림(13.7%)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용돈이 많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이 의복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sup>23)</sup> 이선재, 백선영<sup>24)</sup>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유행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황진숙, 김윤희<sup>25)</sup>는 20대 후반 여성은 일상적 외모관리 집단이 많으나 20대 전반은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외모관리 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체중관리는 많은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외모관리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sup>26)27)</sup> 여대생들은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sup>28)</sup> 이영주<sup>29)</sup>의 연구에서 체중조절행동의 정도가 높은 여대생들은 의복만족도와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제까지 거의 여학생들에게만 사용되어져 왔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들에게도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남녀 고등학생의 체중조절관심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83.6%, 여학생이 81.0%로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유사하였다.<sup>30)</sup>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65% 이상이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sup>31)</sup> 여대생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였으며,<sup>32)</sup>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다.<sup>33)</sup>

김선희<sup>34)</sup>의 연구에서 20대 여성들은 외모관리행동으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피부관리 경험은 얼굴관리, 손톱 및 발톱관리 순으로 많이 하였다. 김숙혜 외<sup>35),36)</sup>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미적 표현을 위해서였으며, 외제 화장품에 대한 선호 정도, 피부에 대한 관심, 전문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의 경우는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서 실제 경험은 적었는데, 이는 피부관리가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여대생은 연령, 학년, 생활수준이 높고,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부건강관리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대학교의 여대생이 남녀공학의 여대생보다 피부관리 정도가 더 높았다.<sup>37)</sup>

헤어스타일은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개인의 헤어스타일은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전체적인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다.<sup>38)</sup> 모발관리를 함으로써 용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93.7%로 매우 많았으며 모발관리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sup>39)</sup> 또 20대 여성들은 유행과 스타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발건강에 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 3. 신체노출태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와 성의 개방화로 인하여 의복스타일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복의 노출에 대한 태도도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정규진<sup>41)</sup>의 연구에서는 자기표현과 의복관심이 높을수록 신체노출 의복행동과 신체노출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Paek<sup>42)</sup>의 연구에서도 의복관심이 높을수록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고 하였다. Sontag와 Schlater<sup>43)</sup>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의복이 몸에 잘 맞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며, 이수지<sup>44)</sup>의 연구에서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미니스타일과 유행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의복관심이 높은 사람은 유행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를 더욱 호의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영주, 임숙자<sup>45)</sup>는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의복은 주로 목, 어깨, 목과 어깨, 목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의복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신체만족 부위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대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 정도가 높으며 신체노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Bem<sup>46)</sup>의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의 short form BSRM(Bem Sex Role Inventory)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 중성성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에서 남성성 척도는 .82, 여성성 척도는 .85, 중성성 척도는 .54였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피험자의 양성성의 중앙치는 4.35, 여성성의 중앙치는 4.90이었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이용하여 양성성과 여성성이 중앙치보다 모두 높은 집단을 양성성 집단, 남성성은 높으나 여성성이 낮은 경우는 남성성 집단,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이 낮은 집단은 여성성 집단,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앙치가 모두 낮은 경우는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전체 분포를 보면, 양

<표 1>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

( ) = row. %

성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남	96(31.8)	61(20.2)	58(19.2)	87(28.8)	302(100.0)
여	93(28.2)	66(20.0)	86(26.1)	85(25.7)	330(100.0)
전체	189(29.9)	127(20.1)	144(22.8)	172(27.2)	632(100.0)

성성 집단의 남녀가 각각 31.8%, 28.2%, 남성성의 남녀가 20.2%, 20.0%, 여성성의 남녀가 19.2%, 26.1%, 미분화의 남녀가 28.8%, 25.7%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은 선행연구<sup>47)48)49)50)51)</sup>를 참고하여 21개 문항을 5점 Liker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신체 노출태도는 노출의복의 착용도를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sup>52)53)</sup>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노출의복의 착용도는 남녀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남자 노출의복은 가슴노출(목둘레를 깊게 파거나 단추 2개를 채우지 않은 셔츠), 어깨노출(소매 없는 셔츠), 다리노출(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간 반바지), 밀착된 상의(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쫄티)이며, 여자 노출의복은 가슴노출(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골선이 약간 보이는 상의), 어깨 전체노출(끈 달린 상의), 넓적다리노출(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간 하의), 배꼽노출(짧은 상의)이다.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법을 사용하여 '입지 않는다'에 1점, '입을 의향이 있다'에 2점, '가끔 입는다'에 3점, '입는다'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의복에 대한 착용도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외모관리비는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평균 외모관리 지출비를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복, 체중, 피부, 화장, 헤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이상까지를 9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① 10만원 미만 ② 10-15만원 미만 ③ 15-20만원 미만 ④ 20-25만원 미만 ⑤ 25-30만원 미만 ⑥ 30-35만원 미만 ⑦ 35-40만원 미만 ⑧ 40-50만원 미만 ⑨ 50만원 이상). 남자는 외모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 48.3%, 10-15만원 미만이 21.9%, 15-20만원 미만이 10.9%였으며, 여자는 10만원 미만이 31.5%, 10-15만원 미만이 25.5%, 15-20만원 미만이 16.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남녀대학생 632명으로서 남자 302명, 여자 330명이었다. 피험자의 연령 분포는 남자의 경우 19세 이하가 9.3%, 20대가 87.1%였고, 여자는 19세 이하가 38.5%, 20대가 61.5%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9월~11월에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외모관리행동 21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1개를 제외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개 문항에서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요인 1은 피부관리를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 크림 등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피부관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5.95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다이어트, 운동 등 체중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체중관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78이고,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의복관리로 명명하였으며,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 4는 성형관리로 명명하였으며,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5는 헤어관리로 명명하였으며,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모든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35 이상이었고 누적변량은 59.48%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각각 .78, .78, .72, .76, .69 이었다.

###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복관리는 남자에게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의복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양성성을 지닌 남자였으며, 여성성 집단과 미

<표 2>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N=632)

요인 1. 피부관리	요인부하량
피부관리를 위해 데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앳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79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한다.	.78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67
여드름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54
전체변량(%)=29.75 누적변량(%)=29.75 고유치=5.95 α 신뢰도=.78	
요인 2. 체중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사용)을 사용한다.	.74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71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69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66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63
전체변량(%)=8.91 누적변량(%)=38.66 고유치=1.78 α 신뢰도=.78	
요인 3. 의복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76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76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64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56
전체변량(%)=8.54 누적변량(%)=47.20 고유치=1.71 α 신뢰도=.72	
요인 4. 성형관리	요인부하량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87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83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63
전체변량(%)=6.23 누적변량(%)=53.43 고유치=1.25 α 신뢰도=.76	
요인 5. 헤어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81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68
나는 머릿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62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35
전체변량(%)=6.06 누적변량(%)=59.48 고유치=1.21 α 신뢰도=.69	

<표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N=632)

외모관리행동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			미분화	F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의복관리	남	3.42a	3.11ab	3.06b	2.90b	7.64**
	여	3.62	3.52	3.52	3.37	2.47
체중관리	남	2.48a	2.25ab	2.09b	2.44ab	3.86*
	여	2.76	2.79	2.63	2.51	1.67
성형관리	남	2.32	2.54	2.49	2.61	1.82
	여	3.19	3.02	3.13	3.04	.70
피부관리	남	2.07	1.90	1.86	2.03	.95
	여	3.09a	2.87ab	2.77ab	2.69b	3.47*
헤어관리	남	2.90a	2.88a	2.49b	2.49b	4.87**
	여	2.89a	2.60b	2.70ab	2.56b	2.86*
전체	남	2.64	2.53	2.40	2.49	2.05
	여	3.11	2.96	2.95	2.83	3.76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분화 집단이 의복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sup>54),55)</sup>에서 양성성 유형의 남성과 청소년들은 특히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많고 외모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자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복관리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성역할정체감과 상관없이 의복의 유행이나 어울림에 끌고 흥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중관리의 차이는 남자에게만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양성성 집단인 남자는 다른 집단보다 체중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sup>56)</sup>의 연구에서도 양성성 집단이 외모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중관리는 여자에게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마른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sup>57)</sup> 정상 체중인 여자도 체중조절을 위하여 음식을 조절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조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sup>58)</sup>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성형관리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피부관리는 남자에게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성성 집단인 여성이 피부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이 가장 적게 피부관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현대인이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화장품은 물론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다양하게 지닌 사람들의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양성성인 남녀 대학생들이 다른 집단보다 헤어관리를 하는 정도가 높았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은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자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의복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행동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피부관리와 헤어관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외모관리행동은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

(N=632)

신체노출태도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가슴노출	남		2.28ab	2.46a	1.86b	2.03ab	4.58**
	여		2.14ab	2.29a	1.81b	1.82b	5.23**
어깨노출	남		2.04	2.20	1.84	2.02	1.23
	여		2.27ab	2.64a	2.10b	2.18b	4.27**
다리노출	남		1.86	2.11	1.79	1.90	1.12
	여		2.60ab	2.86a	2.70ab	2.38b	2.68*
남: 밀착된 상의 여: 배꼽노출	남		1.86	1.90	1.81	1.83	.10
	여		1.34	1.42	1.24	1.32	.87
전체	남		2.01	2.17	1.83	1.95	2.15
	여		2.09b	2.30a	1.97b	1.92b	5.0**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신체노출태도는 가슴노출과 어깨노출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다리노출은 여자의 경우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남성성 집단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는 여성성 집단이 여자는 미분화와 여성성 집단이 가슴 노출된 의복을 가장 적게 착용하였다. 이는 목둘레가 깊게 파인 상의를 많이 착용한 집단이 남성성 성향을 가진 남녀 대학생이며, 여성성 성향을 가진 남녀는 가슴노출의복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깨노출은 남자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성 집단인 여자는 어깨가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미분화와 여성성 집단인 여자는 어깨노출 의복의 착용도가 가장 낮았다. 다리노출은 여자에게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성 집단인 여자는 무릎 위 20cm 올라간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등의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미분화 집단은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가장 낮았다. 남자의 밀착된 상의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밀착된 상의가 직접적으로 신체표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자의 배꼽노출 의복은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배꼽노출 의복이 일반적으로 착용도가 낮은 옷이므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체적인 신체노출태도에서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남성성이 높은 여자들은 다른 집단보다 신체노출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편이었다. 이것은 남성성 성향은 모험심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sup>59)</sup> 남성적인 여자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특성의 수용도가 낮으므로 의복태도에 있어서도 성의 개방화를 수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에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의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으며,<sup>60)</sup> 자기표현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노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던 결과<sup>61)</sup>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전체 신체노출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남자는 의복노출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의복 착용도가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에게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모관리 지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양성성이었으며, 그 다음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 사용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성성의 여성들이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여성들도 여성적인 특징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향이 선호되면서 양성성을 지닌 여성들이 피부관리, 화장, 헤어관리 등을 통해 적

<표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의 차이

(N=632)

성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남	1.77	1.80	1.66	1.60	1.22
여	2.18a	2.09ab	1.78b	1.76b	7.13**

\* $p < .05$  \*\* $p < .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극적인 외모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남녀 대학생 632명으로서 남자 302명, 여자 33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은 요인분석에 의하여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헤어관리의 5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자의 경우 피부관리는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자는 양성성 집단이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이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화장품은 물론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다양하게 지닌 사람들의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체노출태도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를 볼 때 남녀 모두 남성성 집단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고, 여자의 경우 남성성 집단이 어깨노출과 다리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여자는 남성성 성향이 강할수록 전체적으로 신체노출 의복의 착용도가 높았다.

넷째, 여자는 양성성 집단이 외모관리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순이었고, 남자는 외모관리비가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남녀 대학생 모두 양성성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고, 남성성 성향이 강할수록 남자는 가슴노출 의복의 착용도가 높았으며, 여자는 전체적인 신체노출 의복의 착용도가 높았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신체노출태도에

성역할정체감은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정체감의 특성에 의하여 외모관련태도가 차이가 있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한 마케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성 집단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제품과 화장품 등 외모관리제품의 마케팅에서 양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마케팅 활동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외모관리를 하는 것이 여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남성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외모관리 방안을 개발하여 남성들이 외모관리를 남성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성성 집단의 여성이 피부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피부관리에 대한 미용강좌 교육을 실시하며, 보다 정확한 피부상태를 진단 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부타입별 화장품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이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였는데, 건강한 헤어를 위하여 적합한 두피·모발관리 습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몸에 꼭 끼는 타이트한 스타일과 노출이 많은 의복의 착용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출의복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리류업계에서는 노출수용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신체노출 정도가 서로 다른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제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판매촉진 계획과 소비자를 차별화시킨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고, 신체노출 태도에서 의복의 노출부위 측정 문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복유형에 따른 인지적 평가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등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 보다 세부적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노출형 의복스타일과 다양한 의복품목에 대하여 실제 착용사진을 통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상황의 변화와 상·하의 노출의 상호작용효과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 참고문헌

- 1) 스포츠서울 (2007, 10, 11). 취업고시 패스하려면 외모 관리도 필수. 자료검색일 2009, 2, 21, 자료출처 <http://www.sportsseoul.com>
- 2) 이선재 (1996).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악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 pp. 71-83.
- 3) 이윤정 (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 성역할정체감과 의복추구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pp. 551-562.
- 4)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pp. 155-162.
- 5) 이미숙, 박성은 (2004).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11), pp. 137-150.
- 6) 이수지 (1993).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17.
- 7) 정삼호 (1990).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5-35.
- 8) 장휘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p. 98.
- 9)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p. 143-155.
- 10) Bem, S. L. (1974). *op. cit.*, pp. 155-162.
- 11)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pp. 634-643.
- 12) Spence, J. T., Ha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r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pp. 29-39.
- 13) 이현지, 박옥련 (2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 요인: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pp. 1027-1035.
- 14) 윤은아, 이선재 (2000). 성역할정체감의 겉옷·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2), pp. 152-163.
- 15) 이윤정. *앞의 책*, pp. 551-562.
- 16) 이지현 (2004). *남녀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역할정체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6, 38-41.
- 17)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 367-379.
- 18) 김정애, 김용숙 (2001).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4(1), pp. 55-73.
- 19)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 99-108.
- 20)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pp. 1538-1549.
- 21) 임경복 (1997). 인지적·평가적 자아개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소용동기, 의복관심, 의복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4), pp. 740-749.
- 22) 이영숙, 이춘화, 이정애 (1996).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4, pp. 70-77.
- 23) 이유선 (1998).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28.
- 24) 이선재, 백선영 (2000).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25)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p. 143-155.
- 26) 김선희. *앞의 책*, pp. 99-108.
- 27) 김용주 (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행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62.
- 28) *위의 책*, pp. 39-43.
- 29) 이영주 (1999).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 30) 최중철 (2003). *고등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련 행동 및 태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 31)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pp. 1138-1147.
- 32)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 33) 전현진, 정명선 (2008).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6(1), pp. 115-129.
- 34) 김선희. *앞의 책*, pp. 99-108.
- 35) 김숙례 (2000). *성인여성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 41-42.
- 36) 명은진 (2000). *20, 30대 여성의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pp. 23-46,
- 37) 임혜원 (1999).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1-52.
- 38) 이명희 (2004).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pp. 971-983.
- 39) 조성선 (2001).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 40) 광영심, 남철현, 이규수, 이순자, 최연희, 전연숙 (2001).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형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복지연구*, 6, pp. 1-31.
- 41) 정규진 (2004).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행동 및 신체노출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 42)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 10-16.
- 43)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pp. 1-8.
- 44) 이수지. *앞의 책*, p. 16.
- 45) 이영주, 임숙자 (2002).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노출 의복행동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1), pp. 1491-1501.
- 46) Bem, S. L. (1974). *op. cit.*, pp. 155-162.
- 47)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9-53.
- 48)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47.
- 49) 김해정 (2004). *외모관리: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3-64.
- 50) 김아날리아 (2006). *프린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 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0-21.
- 51) 정유경 (2007). *20-30대 남성들의 체질량지수와 체중 조절 실태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 52)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pp. 501-514.
- 53) 정규진. *앞의 책*, pp. 21-22.
- 54) 이선재, 백선영. *앞의 책*, pp. 55-66.
- 55) 이지현. *앞의 책*, pp. 37-38.
- 56) *위의 책*, pp. 37-38.
- 57)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구조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pp. 163-180.
- 58) 정근백, 임동규, 이영주, 이숙기, 윤승욱 (1995). *인천 시내 중고등학교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6(4), pp. 254-260.
- 59) Bem, S. L. (1974). *op. cit.*, pp. 155-162.
- 60) 강혜원 (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pp. 1-11.
- 61) 정규진. *앞의 책*, p. 37.